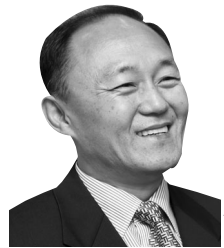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정재영
병영인문연대대표

요즘 한국의 군대는 무엇인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연일 보도되는 기사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부정과 비리로 지면이 덮혀지고,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이다. 젊음과 인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물새는 관사와 척박한 오지에서 수준이하의 삶을 살고 있노라는 꾸밈을 매일같이 들으며 그들에게 최소한의 대가조차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죄의식을 느끼던 터이라서 과연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살아 이런 일을 저질렀던 말인지 의심케 한다.

공군에서는 하늘을 지켜야 할 비행기의 수리를 했다면서 업체와 결탁해 하지도 않은 정비 비용으로 국민세금 수백억 원을 받아 착복한 사람들이 불태웠고, 해군에서는 수십년 전에 만들어져 이제는 생산국의 해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구식 음파탐지장치를 20배나 넘게 주고

방산비리, 국가 안보 훼손의 진짜 주범

구매해 국고를 탕진했다. 쓸모없는 물건을 거간한 미국 현지 업체의 사장은 초호화주택을 사들이는 등 축재했고, 그 축재금은 부정에 가담했거나 지시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적 잠수함의 탐지수단으로 해군의 목숨과도 같은 대잠수함탐지용 헬리콥터도 정비 불량과 짝퉁부속품을 사용하다 추락해 급속같은 생명과 전력손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미 알려진 통영함도 그렇지만 해군이 새로 건조해 진수한 기뢰전함들 역시 짝퉁부속품과 ROC에 미달하는 탐지장치들이 같은 미국업체에 의해 거간돼 우리 군선에 부착되어 그 효용성이 없다고 일선에서 난리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도되는 심각한 사태들을 바라보며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명예와 충성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사관학교출신 고위 장교들이 관련된 부정이고 비리이니 더 걱정스럽다. 지금껏 우리 군에 무기를 거간해온 업체 사장의 비밀 사무실이 발견되고, 급기야는 군사기밀서류들이 가득 찬 컨테이너까지 찾아냈더니 할 말을 잊게 된다. 이러한 방산비리는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폭력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안보와 국방의 직접적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년전 서해북방에서 들려온 참담한 비보에 온 나라가 침묵에 빠진 일이 있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의 민가에 대한 포격소식이 그것이다.

100명 가까운 장병이 승선한 우리 군선이 우리 해역에서 침몰했고,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피격이 침몰 원인이라고 했다. 온 나라가 그 진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발각 뒤집혔다.

조류속도가 5노트에 달하는 급한 물살이 흐르는 바다 속에 잠수함체 시동을 끄고 배터리작동만으로 동력을 받아 균형을 유지하며 매복해 있다가 우리 군선이 지나는 것을 탐지하고 어뢰를 쏘아 정확히 측면을 강타해 버블렛을 일으켜 반동강을 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해군이 밝힌 그 진실이라는 것과,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비록 논란이 있었지만 천안함 폭침사건은 오늘날 보도되는 우리 군의 황당하고 해괴한 부정부패비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파도가 조금만 몰아쳐도 균형을 유지 못해 정확한 포탄발사조차도 불가능하

다는 구식 배와, 현대적 의미의 전력으로서 보자면 가치가 전무할 지경이어서 움직이는 판이라 조종 받는 구식잠수정으로 무장한 북한의 목선함대들에조차도 이리 무참하게 두들겨 맞고 침몰하여 누구한테 무엇이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수장당한 장병들과 그 부모들, 비보를 접한 시민들의 자괴감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우리 군대가 유사시 제 역할을 할 이라도 해낼지 의문과 불안은 펼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군과 공군의 비리와 전비태세가 이렇진데, 군의 절대적 다수를 점한 체 인사와 보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육방부르까지 불리우는 우리 군을 장악한 육군의 현실은 어쩔지 꼭 뚜껑을 열어야만 실체를 볼 수 있을까.

수백년전 임진왜란을 당한 조선의 국방태세가 이러했고, 패망직전의 월남군대가 그러했다. 우리 군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지속한다면 결코 오래지 않은 미래에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로 망명해 또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세계평화기원대회 빈틈없는 준비를

전세계 고승들이 모여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법석이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위원장 지현)는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이하 기원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주요 참석 인원을 발표했다.

주요 행사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부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 행진,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 무차대제 세계종교지도자 현충원 참배까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남북·동북아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에서 발표되는 종교인평화선언도 주목할 만하다.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총 2500여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입정에 드는 장관을 연출

할 예정이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평화법문과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이미 캄보디아 승왕 텡봉 스님을 비롯해 프랑스 담마라타 유네스코 불교협회 책임자, 인도 룰장 아쇼카미션 회장, 수담모 호주 불교연합회장, 방글라데시 우파나조타 골드사원 원장, 프라나나나 그린하트 승가대 총장, 네팔 노르부 타랑사일 회장 등은 대회 참석을 확정지었다. 봉행위원회는 300여 명의 세계 고승들을 초청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제 봉행위원회는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한국불교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보여줄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조계종 교구본사와 범종단적인 협조와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이면서도 한국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행사로도 채워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남북불교 상호교류 활성화 기대

조계종을 비롯해 천태종, 진각종 등 한국 불교 대표적 종단 수장들이 중국 심양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만남을 갖고 남북불교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말 1주일 동안 2~3일 간격으로 회동을 가진 셈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동에 특히 무게를 실는 것도 종단 총무행정 수반들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만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요 실무진들끼리만 회동한 것에 견주어 보면 후시 무순 종대 결정 사안이 있어서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봐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이다.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이 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불교계는 남북 불교인들이 지혜로운 협력과 화합의 실천을 위해 상호교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만남서도 주요 종단 수장들은 범종단적 차원으로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금강산이나 개성서 갖기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6·15 남북동시법회(서울과 평양)를 갖는 방안도 활발한 의견 개진한 한 것 같다. 각 종단마다 서로 대북관계 사업의 방향과 종류가 약간씩 달라 제의한 것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맥락은 한 가지다. 남북불교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불교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아직도 경색 상태다. 좀처럼 좋아지지 힘든 눈치다. 우리 불교계라도 먼저 앞장서서 남북간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팔을 걷어 부치자. 그것이 불교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이다.

발언대

선지식의 산실 '산중불교'를 회복하자



배금란
서울대 종교학 박사과정

오늘날은 자기 개선과 여가 활용의 차원에서 '문화'를 구매하는 시대이다. '종교' 역시 여러 가지 문화적 선택 옵션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각 종교는 전교의 차원에서 현대인들의 '종교적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해졌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근무환경의 변화로 현대인들의 여가문화 및 활용의 패턴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명소나 유적지를 단순히 둘러보는 주유형 패턴에서 일정 장소에 체재하여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흐름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옥 스테이, 농촌 체험, 어촌 체험 등 체험관광 상품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오랜 역사 속에 축적되어온 한국불교의 신행과 수행문화 역시 소비문화의 영

역으로 흡수되면서 상품화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템플스테이이다. 불자, 비불자를 떠나 타 종교인들까지 포괄하는 개방적 프로그램으로서 템플스테이는 예불, 참선, 108배 등 불교수행 문화를 기본 체험의 내용으로 하면서 현대인들의 문화적 기호와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테마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체험 프로그램,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 참가자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양하다.

템플스테이의 확산과 함께 근래에 활성화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단기출가이다. 단기출가는 승려가 되기 위해 예비 수행자들이 거쳐야 할 사전 수련과정을 일반인들이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체험 콘텐츠들은 현재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산사로 불러들이면서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여건이 허락되면 누구나 쉽

게 접할 수 있는 여가문화로 또는 종교 문화상품으로 가능하면서 포교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현재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 콘텐츠들은 전법의 차원에서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산중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긍정적이거나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의 여지가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충분한 수행자들의 본거지가 일반 대중들에게 거리가 멀어 노출되면서 승속의 구분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고백 속에 면면히 이어지는 수행의 기풍과 용맹정진에 몰두하는 수행자들의 존재는 한국불교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었다. 그런데 당장의 가시적인 호황에 눈이 어두워 무분별하게 대중들을 끌어들이다 보면 산사의 고유성과 청정성 그리고 수행의 기풍을 훼손할 수 있다. 또 상업화된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산사는 일반 대중들의 여

가 공간으로 혹은 문화체험의 장소로 세속화되어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종교가 종교의 아우라를 지니지 못하면 존립 근거를 박탈당하게 된다. 종교는 '종교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내적인 차원에서 산중불교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선지식의 산실로서 사찰의 본령과 올바른 승려상을 강조했던 융성 스님의 인식은 오늘날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한국불교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산사가 대중들에게 진정으로 전해 주어야 할 한국불교의 '법(Dharma)'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체험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도 이러한 성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종교상품으로서의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불교평론 61호에 수록된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췌·정리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디자인 등록원

현불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명	규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코끼리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大) 28.5cm×34cm (中) 21.5cm×29cm (小) 18.5cm×23cm (小) 15.5cm×18cm
향로	거북	(大) 26cm×20cm (中) 22cm×14cm (小) 20cm×13cm (小) 17cm×12cm
	용두	(大) 15.5cm×7.5cm (小) 11.7cm×5cm
	다기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